



예 재 길
(바이엘 동물의학연구소)

‘위축성 비염과 유행성 폐염의 진단 및 대책’

돼지사육이 점차 대규모로 변화하면서 돼지의 질병은 양돈경영에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어 졌으며 여러 질병이 발병되어 피해도 많았고 발병 빈도도 높았다.

1970년대 이전에는 돼지 콜레라, 돼지 단독등 전염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은 질병이 극성을 부렸지만 효력이 우수한 예방약의 개발로 해결하였다.

그후 양돈산업은 밀집·다두 사육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호흡기 질병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위축성 비염과 유행성 폐염은 우리나라 어느 양돈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이다.

본 칼럼에서는 위축성 비염과 유행성 폐염의 정확한 진단방법과 효과적인 대책수립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위축성 비염

1) 진단방법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위축성 비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즉 ①사육돈중 비출혈을 보이는 돼지가 간혹 있다. ②분만돈사의 포유자돈이나 육성돈이 심한 재채기를 한다. ③포유자돈이 유난히 코를 돈방벽에 비비는 일이 많다. ④자돈이 점액성 혹은 농양성 콧물을 심하게 흘린다. ⑤눈 밑에 검은 반점이 생긴 돼지가 눈에 많이 쾀다. ⑥콧등에 주름이 크게 생기는 돼지가 있다. ⑦코의 한쪽이 짧아지는(즉 코의 비틀림) 돼지가 있다. ⑧중용돈이 교미 후 자주 비출혈을 보인다. ⑨비갑개골을 횡단면으로 절단하였을 때 비갑개골이 위축되어 비갑개공에 공간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 진단은 ⑩실험실에 세균분리를 의뢰하여 위축성 비염균(대부분 보데텔라 브론키 셉티카이나 간혹 파스튜렐라 물토시라도 원인균으로 작용하고 있다)을 분리한다. ⑪위축성 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서 위축성 비염 항체가 나올 경우 위축성 비염 감염돈으로 진단할 수 있다.

2) 대책

위축성 비염의 대책은 수립방법도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기란 질병의 이론상 어려운 질병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치료·예방대책을 강구하면 위축성 비염의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요 대책을 열거하면 ①임상증상이 심한 돼지는 격리 및 원칙적으로 도태해야 된다. ②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분만전 모돈에 접종하고 자돈에서 발병율이 높으면 자돈에도 2회 보강 접종해 준다. ③초유급여를 빠짐없이 충분히 시킨다. ④포유자돈에게 비



강내 분무법을 실시한다. 분무횟수는 분만직후, 7일령, 14일령, 21일령 및 이유시 감수성이 우수한 항생제나 설파제등을 선택하여 1두당 1-1.2 ml씩(좌우 각각 0.6ml가량) 비강내 분무해 준다. ⑤ 항생제 급여법으로 모돈에게 분만 14일전 부터 이유시 까지, 자돈은 사료급여 개시 부터 90일령 까지 감수성이 우수한 항생물질을 투여한다. ⑥ 비육돈은 사육밀도를 낮추고 출하 및 입식시 동시출하, 동시입식시켜 새로 전입되는 돼지에 직접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유행성 폐염

1) 진단방법

유행성 폐염의 진단은 임상증상으로는 확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임상증상, 폐장의 육안적 병리소견 및 조직검사로서 진단할 수 있다. 임상증상은 산발적 건성 기침으로 사료섭취 전후, 심한 운동이나 이동후에 많이 볼 수 있다. 육안적 병리소견은 심엽과 첨엽에 대부분 좌우 대칭으로 한계 명료한 암갈색 혹은 자적색 병변을 형성한다.

확정적 진단은 실험실에서 조직검사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균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균은 일반배지에 증식이 되지 않은 세균으로 특별한 연구목적이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를 돼지 폐장

6

호흡기 질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육밀도이므로 적절한 사육밀도를 유지해주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해 줘야

9

에서 분리하지 않는다. 이런 특수한 원인균이라는 것을 미리 인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린다. 유행성 폐염의 진단은 1-2두의 돼지를 부검하여 진단하기 보다는 출하시 많은 돼지의 폐장기를 검사하여 유행성 폐염의 감염실태나 병변의 형성정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대책

유행성 폐염의 발병율을 줄이고 이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육관리의 개선책을 부단히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돈사의 온도, 습도의 유지, 환기 철저, 먼지와 유해가스의 제거, 철저한 돈분제거, 충분한 사료통 설치등이다. 또 호흡기 질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육밀도이므로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가 요망된다.

아울러 돈방내 충분한 소독 및 동시출하·동시입식법 도입으로 돼지에 직접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유행성 폐염은 일단 폐장에 폐염병변이 형성되면 그 병변을 완전히 완치, 회복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사육환경의 개선 및 감수성이 있는 항생물질의 투여로 마이코플라즈마균 증식을 억제하고 병변의 확산을 막아 증체를 향상과 사료효율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

